

# '소상공인 살리기' 행정력 집중

## 진안군,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무주군, 경영안정·소비심리 회복 위해 33억여원 투입 9개 사업 추진

무주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3억여 원을 투입 하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0%를 확대한 규모다.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 심리 회복에 주안점을 둔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분야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2억 3천만 원)과 △카드형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2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5억 4천만 원),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회향 장려금(1천4백만 원)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화재보험

료 지원(5천만 원)과 △소상공인 키오스크 디지털 인프라 지원(1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2천8백만 원) 등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이는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지원(22억 8천6백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4천만 원) 등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경제의 심장이자 동력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분투 중인 소상공인들이 더

고 일어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지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경기부양 이벤트(아시장 및 아반도주 행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물가안정 집중 관리 등의 활동이 경기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 최소화 주력

냉해예방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400여농가 600ha 규모에 요소·붕산 공급

무주군은 과수 개화기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냉해예방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냉해 피해로 인한 결실 불량에 대응하고 이듬해 착과량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4백여 농가 6백ha 규모에 요소와 붕산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를 혼용해 발아기(3~4월) 엽면 살포를 독려할 방침

으로 2차 살포는 수확이 끝난 나뭇가지에 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요소 2%(10kg/500l), 붕산 0.1%(0.5kg/500l)를 살포하면 꽃눈 생존율은 50%, 착과율은 23%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최근 몇 년 새 이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결실 불량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사과 가격 상승 악재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를 막

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엽면시비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과수 품질은 물론, 농가 소득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소 성분이 꽃눈의 저장양분을 강화하고 붕산은 수경이 잘되게 하는 동시에 칼슘 함량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농가에서 적절한 양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29일까지 결핵예방주간 운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교육·홍보 캠페인 등 실시

진안군은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20일~29일까지 10일간 결핵 예방 주간으로 운영한다. 결핵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며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다. 결핵 예방수칙으로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검역 검사 및 결핵 검사받기, △올바른 기침예절 꼭 실천하기가 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결핵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결핵 발병률이 높아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회 결핵 검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군은 결핵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5세이상 어르신 검진을 위해 오는 21일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행복한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3월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에는 진안고원시장에서 결핵 예방수칙 및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결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정기 검사를 해줄지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별 도로명·주요시설물 수록 제작 사업 추진

진안군은 주민들의 마을 행정 업무편의를 위해 319개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4,785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고, 각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종합지도에는 최신 항공사진과 도로명, 지명,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주요시설 정보와 주민이 원하는 공간정보(버스정류장, 점선화 등)가 추가로 수록된다. 앞서 진안군은 애매한 마을 경계 때문에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2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완료했는데 당시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4월부터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마을 경계를 재조사하고,

지도에 반영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도 제작이 디지털기기를 어려워하고, 행정복지센터로의 접근이 불편했던 주민들도 필요한 토지정보를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손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공간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행정구역 조정, 주민 집합지출, 선거사무, 민원상담 등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전순 군수는 "지도제작사업을 통해 공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민회관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 장수군, 고령운전자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 운영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민회관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은 한 국도로교통공단(전북권역 면허시험장, 지부, 교통방송)이 주최·주관한 것으로, 기존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은 전주에 위치한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갱신 대상인 장수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수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 검사 △교통법규 등 보행자 교통안전교육 △인지지각체계를 통한 인지기능검사 등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올해 전북 도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1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식 군수는 "고등안 어르신들이 면허시험장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9일, 1일간 제37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방안」, 장정복 의원의 「스마트팜 참여 청년농 정착방안 마련 강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유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산서시장 활성화 및 산서면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한국회 의원의 국정질문이 있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암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제18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군민들을 대상으로 19일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암 발생의 1/3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암 예방의 날 홍보와 함께 국가암 검진 안내, 간단한 OX 문제 및 사은품 증정 등을 통해 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암 예방의 첫걸음인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는 머투지 말고 하루빨리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강조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 금연·절주,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건강 체중 유지,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받기 등 10가지 항목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